

미술과 시간 보내기 2

빛과 공간의 예술 Light and Space Art 경험하기





본다는 것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Seeing Is Forgetting the Name of
the Thing One Sees

- 로버트 어윈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처음 경험한 것은 2002년 뉴욕 MoMA PS1에서였다. 그것은 '만남 Meeting'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각형의 작은 방에 벽과 이어져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의자 공간이 전부였다. 천장에는 푸른색의 단색 평면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외기러기 떼가 무리 지어 날아가기 전까지 그것이 하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구름이라도 몇 점 떠 있었더라면 쉽게 하늘에 난 구멍인 것을 인식 했었을 테지만 그때 뉴욕의 겨울 하늘은 맑은 단색의 하늘빛이었다. 그곳에서 한참을 있다 노을 질 때가 되니 어스름하게 오렌지색 불빛이 들어와 공간은 인공의 빛과 자연의 빛으로 가득 찬 빛의 공간이 되었다.

20세기 초 미래파 선언 이후로 키네틱 아트와 함께 나타난 빛의 예술은 1960년대 빛의 효과를 강조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광선의 물리적 기능과 광학적 효과에 중점을 두며 '라이트 아트(Light Art)'로 명칭된다. 이들의 분파인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 제임스 터렐, 로버트 어윈, 래리 벨 등은 미니멀리즘의 주변부로 인식되어오다 1990년도 비평가 로잘린 크라우스에 의해 관람자의 정신적 측면이 부각되게 되어 빛과 공간(Light and Space Art)을 지각하는 예술이라는 새로운 경향의 예술로 재조명되었다. 즉 빛과 공간 예술(Light and Space Art)이란 빛을 사용하여 빛 자체의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 안에서 존재할 수 없는 빛의 환영성을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오브제로 인식하는 관람자의 감각적인 지각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예술을 의미한다.

빛과 공간 예술의 작가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임스 터렐은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빛 이미지의 환영공간을 만들어내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설치 예술가이다. 제임스 터렐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성장했

는데 광활한 캘리포니아의 대자연 안에서 보고 느낀 빛에 영감을 받았다. 또 비행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비행술을 배워 어린 시절 직접 하늘을 마주했던 경험과 내면적 빛의 체험을 중시하는 웨이커 교(기독교의 한 분파)의 영향은 그의 작업의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최초 작업인 <에이프럼 Afrum 1966>은 어두운 전시공간의 벽 모서리에 제논 영사기(Xenon Projector)로 빛을 강하게 투사시킨 작업으로 전시공간의 허공에 정육면체의 입방체가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작업이다. 이 작품은 평면도형이면서 3차원적인 입체감을 주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정육면체의 투시도형 '네커 입방체(Necker Cube)'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다 후에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작품이다.



1 <제임스 터렐 '만남 - MoMA PS1 1986' / 출처 : 제임스 터렐 공식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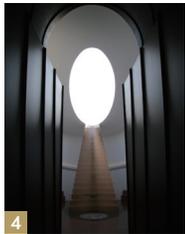
2 <제임스 터렐 '에이프럼 (White), 1966' / 출처 : 제임스 터렐 공식 홈페이지>

3 <제임스 터렐, '간츠 펠트- 바르도의 다리, 2009' / 출처 : 제임스 터렐 공식 홈페이지



2009년 볼프스부르크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그는 700㎡ 넓이의 공간에 11m 높이의 공간 돌을 인접해 만들고 빛을 채워 넣어 <간츠펠트- 바르도의 다리 Ganzfeld-Bridet's Bardo>를 완성했다.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의 꼭대기에서 경사진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관람자는 붉은색에서 보라색, 파란색을 거쳐 찬 하얀색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빛의 범람 속에 방향감각까지 잃게 된다.

그에게 작품의 배경이자 일부 혹은 총체가 된 작품은 <로덴 분화구>이다. 제임스 터렐은 1977년 각종 후원금을 총동원해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오래전 활동을 중지한 화산 분화구를 구매했다. 지름 3.2km, 200m 높이의 이 로덴 분화구의 아래는 건축공간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지하 공간은 첫째, '해와 달의 공간', 둘째, '분화구의 눈, 남쪽 방', 셋째, '동 측 알파 터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그 공간들을 잇는 긴 터널들을 설치하였고, 각 공간은 천문학적 변화에 따라 자연의 빛을 끌어들이며 2만 5,800년 동안의 천문학적 이벤트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약 30년간 공사를 진행했으며 2005년에 대중에게 처음 개방되었다.



4



5



6

4
동문

5
분화구의 눈

6
알파터널

7
로덴 분화구
/출처: 제임스 터렐
공식 홈페이지

8
<로버트 어윈과 에드워드 윌츠 박사가 무반향실에서 실험하고 있다> / 출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그곳에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초승달에서 만월로 변해가는 우주의 객관적 시간의 흐름을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뚫린 천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해와 달의 공간"에서는 매 18.61년마다 달이 가장 남쪽으로 치우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매년 두 번, 춘분과 추분 때 검은 점이 간간히 섞인 해도 볼 수 있다.

제임스 터렐이 빛과 공간을 이용하여 주로 작업하는 반면 로버트 어윈은 대상 그리고 공간을 비물질화 시키는 건축적인 조각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는 오브제와 틀이 없는 미술을 탐구하며 미술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건축적인 장소가 가지는 한계와 틀을 벗어나고자 고민했다. 로버트 어윈은 또한 '인식하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람자의 인식이 창조적 행위로 발전되며 그것이 작품을 완성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9년 <미술과 기술 Art and Technology> 프로그램에서 제임스 터렐과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윌츠 박사(Dr Edward Wortz)와 함께 인식에 관한 실험에 참여했다. 그는 홀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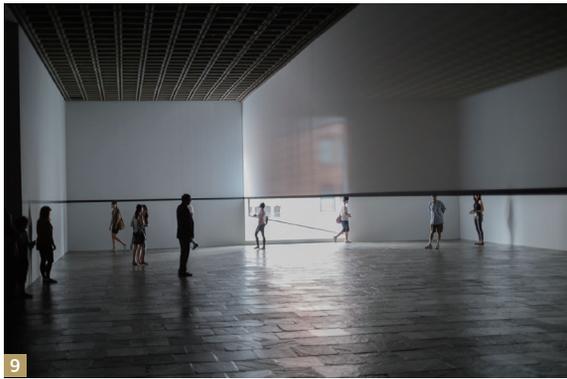


로 어두운 방에 들어가 아무런 시각적, 청각적 자극도 없는 상황을 경험한 후 인식의 과정을 깨닫고 이후 이 실험은 그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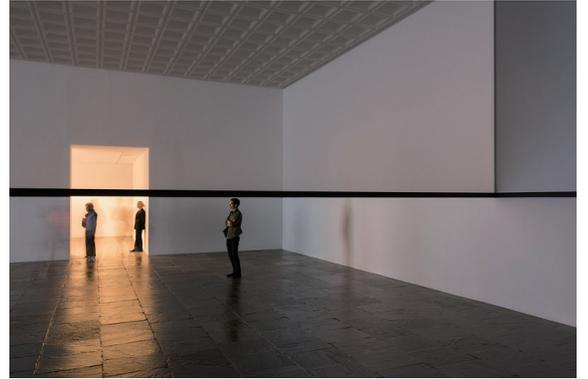
사실상 상당수 그의 작품은 설치된 공간 내부에 반사된 빛으로 형성된 주변 환경 때문에 작품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공간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빈 공간으로 인식해 관람하지 않고 되돌아간 경우가 많았다. 그는 휘트니 뮤지엄 4층에 1977년부터 영구 설치된 그의 창문과 함께 하얀색의 반 투명 천과 긴 검정색 철 기둥을 전시장을 가로질러 설치하고 그 설치된 구조물과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전시장의 벽에 검정 선을 그려 넣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

는 자연광을 수용하고 공간을 변화시켜 다양한 빛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빛과 공간을 실험하였다. 그는 “본다는 것은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라며 빛과 공간을 통한 감각적인 경험(sensory experience)을 이끌어 냈다.

제임스 터렐의 설치를 보고 난 후 사라지지 않는 몸의 체감된 기억에 제임스 터렐의 작품 도큐멘테이션 비디오를 샀다. 하지만 청각과 시각만으로 구성된 비디오로 그의 작품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지각과 확장된 감각의 경험이 작품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은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9
 <로버트 어윈, 면포 베일-검정 사각형-자연광 2013>
 / 출처 : 휘트니 뮤지엄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Spatial Illumination-9 Lights in 9 Rooms
 2015.12.05. ~ 2016.05.08.



최근 트렌디한 감각의 전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림미술관이 2015년 12월 5일 한남동 독서당로에 분관 격인 디 뮤지엄(D MUSEUM)을 개관했다. 개관 특별전시인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에서는 라이트 아트의 거장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를 비롯해 세리스 윈 에반스, 플린 탈봇, 스튜디오 로소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들이 모여 설치, 조각, 디자인,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으로 9개의 독립적인 방을 꾸몄다. 빛을 재료로 다양각색의 형태와 표현방식을 담은 9점의 작품을 통해 ‘빛’이 색, 소리, 움직임과 같은 감각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속성을 가진 매체로 확장되며 이것을 공간 속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전시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림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daelimuseum.org>)